



오비맥주, 홍콩 판매 1위 맥주 '블루걸' 국내 출시

오비맥주가 1일 홍콩 국민 맥주 '블루걸'을 선보였다. 오비맥주가 1988년부터 홍콩 현지 판매사인 켈스그룹과 손잡고 제조업체설계개발생산(ODM)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는 프리미엄 맥주다. 블루걸의 한국 출시는 한국 기술로 만든 국산 맥주가 해외로 수출돼 성공을 거둔 후 역으로 국내에 소개되는 최초 사례다. 알코올 도수는 5%로, 시원한 청량감과 부드러운 끝맛이 특징이다.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임시휴점...부산시 임시사용 승인 불허

“롯데타워 안 지을 거면, 백화점 운영하지 마!”

2013년 터파기 공사 후 건립 미뤄져 부산시 “롯데, 건립 진정성 안보여” 갈등 장기화 시 근무자·상인 타격 롯데쇼핑 “올 하반기 건축심의 진행 롯데타워, 빠른 시간 내 완공할 것”

부산 롯데타워 건립을 둘러싼 롯데쇼핑과 부산시의 갈등이 결국 1일 롯데백화점 광복점(이하 광복점)의 임시 정기휴무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부산시가 5월31일 광복점과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동 등 상업시설들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시설은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영업해왔는데 기간이 5월31일까지였다. 이날까지 추가로 임시사용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1일부터 광복점 운영은 위법이 된다. 이에 1일 임시 정기휴무를 했고, 승인이 날 때까지 휴무가 계속된다.

●롯데타워 사업 부진이 원인

광복점의 임시사용 승인 불허는 부산 롯데타워 건립을 놓고 롯데쇼핑과 부산시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다. 롯데쇼핑은 부산 중구 옛 부산시청 터에 107층(높이 428m)의 롯데타워와 롯데백화점, 마트 등을 짓기로 하고 2000년 부산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어 롯데백화점(2009년), 아쿠아몰(2010년), 롯데마트(2014년) 등 3개 동만 먼저 지었고, 매년 임시사용 승인 신청 후 부산시가 이를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주거시설을 넣어 수익성을 높여겠다는 롯데쇼핑의 사업성 확보 계획이 특혜 논란으로 무산되면서 2013년 터



부산 롯데타워 건립을 둘러싼 롯데쇼핑과 부산시의 갈등이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임시사용 승인 불허로 이어졌다. 1일 임시 정기휴무를 한 롯데백화점 광복점 출입구에 휴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파기 공사 이후 건립이 지지부진했고, 2019년에는 규모를 기존 107층에서 56층(300m)으로 축소하는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이에 부산시는 “롯데쇼핑이 롯데타워 건립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임시사용 승인만 받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으로 선화했다.

위기를 느낀 롯데쇼핑은 최근 높이는 300m로 유지하되, 배가 항해 시 뱃머리에 이는 파도 모양이 가미된 타원형 건축물로 디자인을 바꾸고 미술관, 전망대, 스카이라운지,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변경된 롯데타워 건축 계획으로 경관 심의를 다시 신청해 5월26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롯데쇼핑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사업 추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임시

사용 승인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근무자와 상인들 타격 예상

일각에서는 롯데타워가 이미 부산시 경관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를 통과한 만큼, 부산시가 임시사용 승인을 연장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광복점에서 일하는 3300여 명의 근무자가 근무 터전을 잃게 되고, 광복점에 상점들이 들어가는 빠른 시간 내에 부산의 랜드마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복점은 2021년 기준 전국 백화점 매출 순위 28위(3825억 원)로 부산에서는 신세계 센텀시티점,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 이어 3위에 랭크돼 있다.

나선다는 방침이다. 롯데쇼핑 측은 “부산시에 롯데타워 건립에 대한 진정성을 재차 확인시켜 임시사용 승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부산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또 “광복점 임시사용 승인 연장 불허와는 별개로 롯데타워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건축허가 신청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빠른 시간 내에 부산의 랜드마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복점은 2021년 기준 전국 백화점 매출 순위 28위(3825억 원)로 부산에서는 신세계 센텀시티점,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 이어 3위에 랭크돼 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필로스, 신개념 산소공급마스크 '브리딘' 개발 비상사 산소공급시스템 작동...호흡 돕는다



김철승 (주)필로스(FILOS) 대표가 소방, 산업, 해양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필로스는 지난해 9월 산소농도 18% 이상의 산업현장 및 화재 대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산소공급마스크 브리딘(전면형) 착용 모습. 사진제공 | (주)필로스

필로스는 지난해 9월 산소농도 18% 이상의 산업현장 및 화재 대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산소공급마스크 브리딘(Breathe in Oxygen)을 출시했다.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은 산소공급 마스크 산업용은 산소농도 18% 이상의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산업용 마스크로 사용하다가, 긴급상황이나 비상상황시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작동시키면 사용자의 호흡을 도와줘 대피시간(약 40분)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다.

김철승 대표는 “산소공급시스템 중에서 산소를 일정하게 제공하는 레귤레이터가 핵심 기술력”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용 마스크의 필터와 마스크 사이에 레귤레이터를 결합시켜 작업 중 긴급상황시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으며, 레귤레이터를 기존 제품과 호환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출시된 제품은 산소공급마스크 산업용(반면형, 전면형), 질식방지용 등 3가지 버전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LG, 오브제컬렉션 신제품 올레드 TV 공개

LG전자는 ‘올레드 오브제컬렉션 신제품(LX1·사진)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올레드 에보에 오브제컬렉션의 공간 인테리어에 감성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TV 주변의 복잡한 기기와 전선에 대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수납공간을 적용했다. TV 후면에 탈부착이 가능한 액세서리 수납함을 이용하면 셋톱박스, 멀티탭 등 주변 기기들을 보관할 수 있다. TV 스탠드 다리 내부에는 전선을 삽입할 수 있다. 제품의 전·후면에는 베이지 색상의 고급 패브릭 소재를 적용했다. 뒤에서 봐도 깔끔하게 정돈돼 있어 TV를 벽 바로 앞에 설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다.

LG전자는 6일(현지시간)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글로벌 디자인 전시회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2’에서 네덜란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모오이’와 함께 이 제품을 처음 공개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KT, 파트너사 ‘커뮤니아시아’ 참가 지원

KT는 1일부터 3일 동안 싱가포르 엑스포 전시장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박람회 ‘커뮤니아시아 2022’에 6개 파트너사와 함께 참가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투자자 등이 참여하고 통신, 클라우드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글로벌 전시회다. KT는 참여 파트너사에 독립된 전시 공간과 바이어 상담 공간을 제공하고, KT 브랜드를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및 현지 바이어 상담에 필요한 통역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KT는 파트너사 간 협력을 도모해 글로벌 동반 성장의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h@donga.com

전방위 성능 업그레이드...3세대 완전변경 벤츠 ‘GLC’ 세계 최초 공개

전 모델 벤츠 4MATIC 사륜구동 탑재 온·오프로드 아우르는 주행 효율성 ↑ 한층 모던하고 스포티해진 인테리어

메르세데스-벤츠가 중형 SUV GLC의 3세대 완전 변경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C’를 1일(현지 시각) 온라인으로 열린 독일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벤츠 GLC는 2015년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260만대가 팔렸으며, 지난 2년간 메르세데스-벤츠 라인업 중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3세대 GLC는 파워트레인, 디자인, 인테리어, 적재공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전방위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전 모델에 벤츠 4MATIC 사륜 구동 시스템을 기본 탑재했고, 오프로드 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오프로드 스크린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 이전 세대 모델 대비 15mm 늘어난 휠베이스와 50L 늘어난 트렁크 공간도 만족스럽다.



디자인은 이전 세대 대비 60mm 길어진 차체를 통해 더욱 다이내믹하고 파워풀한 비율로 완성됐으며, 인테리어는 한층 모던하고 스포티해졌다. 또한 음악 스트리밍, 뉴스플래시 기능이 추가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를 탑재해 더 직관적으로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파워트레인의 변화도 뚜렷하다. 온·오프로드를 아우르는 효율성을 발휘하는

4기통 가솔린 및 디젤 엔진과 결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다.

2세대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ISG)와 48볼트 시스템이 결합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클라이밍 및 회생 제동을 지원하며 높은 효율성을 발휘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31.2kWh의 배터리와 최대 출력100kW, 최대 토크 440 Nm를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전기



모드뿐만 100km(WLTP 기준) 이상 주행할 수 있다. 최신 세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도 탑재했다. 앞차와의 간격 유지 및 자동 속도 조절, 제동 및 출발을 지원하는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과 360도 카메라를 통해 차선 감지 기능이 추가된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 등이 포함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